

조동호 · 최정호 낙마에...

與 “존중” vs 野 “꼬리 자르기”



조동호



최정호

여야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2기 국무위원 후보자 7명 중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낙마한 것과 관련해 잇달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꼬리 자르기식”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 경질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라며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

논평에서 “이번 장관 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 라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헌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고 일갈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더욱더 커지기 전에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라며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평하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석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본인이 엄중히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치적인 공세가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것은 수용이 불가하다”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생 개혁 법안,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 “조국 경질부터...박영선·김연철도 지명 철회”

민주 “文대통령 결단 존중...나머지 후보 문제 없어”

면 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

평을 내고 “결국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피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연철·박영선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선 출마, 황홀한 덧이기는 한데...”

이낙연 총리, 몽골 · 중국 순방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포함한 향후 거취와 관련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과 국민의 뜻이 대선 출마일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는 “황홀한 덧이기는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충칭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민간간담회를 하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못 돼...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이렇듯 말했다.

이설치 주목되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범여권 대선주자 1위 기록을 유지해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총리는 여당에서 역할을 제 안한다면 내년 총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할을 줄 분들이 생각지도 않는데 (가정해서) 역할을 준다면 기꺼이...”라는 소리를 하면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냐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총선 역할론에 여지를 남겨뒀다.

지난달 여당 일부 의원들과 만

창 중국 총리와 처음으로 회담을 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중관계가 경색된 이래 양국 총리회담이 열린 것은 2년9개월 만이다.

이 총리는 “한-중 총리회담은 (대화 내용) 거의 전면 공개됐다. 그걸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워낙 엄청난 문제였기 때문에 정감이 없었는데 대화를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그래도 (리 총리가) 찬찬히 들어주고 반응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총리는 ‘대일(對日)관계 개선도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공감하며 일본 고위급과 소통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8월에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10월 하순에 일왕 즉위 행사가 있다.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어야 할 텐데 G20이 제일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며 여건이 녹록치는 않다고 전했다.

앞으로 남은 해외순방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이 총리는 “입시국회가 없는 1, 3, 5, 7월을 생각했다. 2번 정도 더 가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당과 국민의 뜻이 모아진다 해도 대선 출마 생각이 없는지 라는 물음에는 “황홀한 덧이기는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취임 만 2년...대선주자 지지를 1위 유지에 거취 관심 “계획대로 사는 사람 못 돼...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총리는 재차 “지금 머릿속에 앞날에 대해 갖고 있는 게 없다”며 “그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더 많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연일 깨닫고 있다. 정책을 세울 때, 정책을 전달할 때, 집행 과정을 점검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이 꽤 많은데 이제 실수를 덜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이면 이 총리가 취임한 지 만 2년이 된다. 역대 최장수 총리 재임기간(2년5개월)을 넘

나 “자연인으로 총선을 도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쩔이 되면 해가 뜰 거라는 정도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자연인이 되면 더 잘도 와지겠조”라고도 말했다.

이런 여당 의원들과의 규함을 대권 행보로 해석하는 기자들에게 이 총리는 “그런 바보 의원들이 어딴지냐”며 “옛날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해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순방 중에 리커

홍준표 “김학의 하나로 광상도 비난?...문다혜 건드린 보복”

“황교안 · 청와대 · 최순실이 목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증 실수 하나로 파편 광상도 의원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문다혜(문재인 대통령의 딸)를 건드린 보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역풍에 당하고 있는 한국당을 보노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 광 의원의 경우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 의원은 박근혜 정권 초기 6개월간 잠깐 민정수석을 한 사

람”이라며 “김학의 차관 한 사람 검 증 실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김 차관은 바로 경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 의원을 “정권 초기 바른 말 하다가 마음 받아 6개월 만에 민정수석 자리를 내놓고 경질된 사람으로 나는 듣고 있다고 두둔한 뒤 “지금 민정수석을 2년째 하고 있는 조국과 한 번 비교해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광 의원이) 경찰 수사부를 질타하고 경질됐다고 하는데, 경찰은 민정수석 관할이 아니라 정무수석 관할”이라며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리는 광 의원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경질된 그해 검

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갈태기 대검 차장 때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듯이 육안으로도 명백히 식별이 가능했다는 동영상 원본이 있었는데 왜 흐릿한 사본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 핵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들의 목표는 김학의 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김학의를 구속하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황교안)과 청와대, 최순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변화 모색”

평화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최경환...제3지대론 강조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이 지난달 30일 개편대회를 열고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선출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개편대회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김경진 의원 등 당 지도부들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3년 전,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인

의 입도적 지지를 받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광주와 호남을 대변해 왔다”며 “광주에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고, 광산연진공원, 에너지밸리 특별법을 만들고 AI인공지능 창업단지 유치를 위해 광주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든 것도 민주평화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우보수의 길을 가고 있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파와 패권, 오만과 독선에 빠져 문제해결 능력을 잃고 아무 것



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평화당이 환골탈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 모두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제3지대를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3지대 형상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 인사 만이 아닌 다당제 협치 민주주의 정착발전을 바라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세력을 모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봉우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REENISLAND